

전남대 430명·조선대 528명...정원 10%감축

광주·전남 9개 대학 2017년까지 ... 30개 특성화 사업단 선정

감축 규모 수도권의 3배 ... 불합리한 구조조정 지방대 고사 우려

광주·전남지역 9개 주요 대학이 내년도 신입생을 940명이나 줄여 뽑는다. 2017년까지는 입학정원을 약 2000명 감축해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입학 정원감축과 연계한 정부의 대학 특성화 사업에 전남대·호남대·목포대·순천대·조선대·동신대·남부대·광주대·광주교육대(지원액 순) 등 광주·전남 9개 대학 30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이들 대학에는 앞으로 매년 약 202억원씩 5년간 1000억 여원이 지원되며, 특성화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2017년까지 입학정원을 평균 10%씩 감축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특성화 사업(CK)'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 결과 지방대학은 80개 대학의 265개 사업단이 최종 선정됐다.

특성화 사업 선정에 의해 지역 9개 대학이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2017년까지 입학정원을 평균 10% 감축한다. 이는 수도권 평균 감축 3.7%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수치이며, 지방대 평균 감축비율(8.7%)보다도 월등히 높다.

정부의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취업률을 중심으로 한 경제논리 위주로 진행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기반이 열악한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정원 감축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9개 대학은 입학정원을 2015년도에 평균 4.8%(940명) 줄이고 2017년까지 총 10%(1948명)를 감축한다.

이중 조선대는 당장 내년에 10%인 528명을 줄여 신입생을 모집하며, 전남대는 2016·2017년 2년 동안 430명을 줄여서 뽑

■ 광주·전남 주요대학 입학정원 감축 규모

	2015년	2016년	2017년
전남대	-	430명(2016~2017년)	-
조선대	528명	-	-
호남대	183명	-	-
광주대	183명	-	-
동신대	100명	40명	32명
남부대	24명	39명	16명
순천대	-	144명	36명
목포대	20명	124명	35명
광주교육대	-	12명	2명

*평균감축 (2015년 4.8%, 2017년까지 10%)

는다. 또 광주대와 호남대는 각각 내년엔 183명을 줄이며, 동신대는 100명(2015년)·40명(2016년)·32명(2017년) 등 순차적으로 줄여 나간다.

이 같이 3년 안에 10%의 정원 감축을 약속한 광주·전남지역 9개 대학 30개 사업단은 대학별 특성화 사업에 선정돼 5년간 지원을 받는다.

전남대는 7개 사업단이 선정돼 연간 지원액이 59억원으로 전국 3위를 차지했다.

호남대는 6개 사업이 선정된데다 특성화 우수사업단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가 추가, 약 40억원을 지원받게 돼 호남권 사립대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이어 목포대는 33억원, 순천대 29억원, 조선대 15억원, 동신대 11억 5000만원, 남부대 9억6000만원, 광주대·광주교육대 각 3억원 등이다.

광주지역 대학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정책이 지역 대학의 특성과 경제기반 등을 고려치 않고 수도권과 동등한 기준에서 시행되는 것은 자칫 지방대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지법, 세월호 '쌍둥이' 오하마나호 현장 검증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원) 판사들이 지난 30일 인천항에서 정박중인 세월호 쌍둥이배 '오하마나호'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아래는 판사들이 검찰, 변호인단, 피해자 가족 대표단 등과 함께 오하마나호 조타실에서 현장 구조 및 당시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6면

인천=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철회 업무복귀 임금 3.65% 인상 합의

전국자동차노조 광주지역버스노조(이하 버스노조)가 지난 30일 파업을 철회한 뒤 업무복귀를 선언했다.

노사 양측은 3.65%의 임금 인상안에 합의, 시내버스 파업은 8일 만에 종결됐다. <관련기사 6면>

버스노조는 이날 시내버스 회사와 합의한 임금 3.65%(4호봉 기준·11만 6000원) 인상안에 대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광주시 중재안 3.62%(11만 5000원)보다 0.03%, 사측이 제시한 3.0%(9만5000원)보다 0.65% 높은 금액이다.

파업 초기 버스노조는 5.29%(11만 6000원) 인상을 주장한 반면, 사측은 3% 인상을 고수했다.

하지만 버스노조가 지난 29일 사측과 수 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협상안 끝에 5.29%에서 3.80%까지 낮췄다. 이후 중재에 나선 시가 최종안으로 3.65% 인상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타결됐다.

버스노조는 또 사측과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상여금·하계휴가비·김장비 등 제수당을 통상 시급에 포함해 받게 된다.

현재 운전기사 월 평균 근무일은 최대 24일(하루 평균 8시간씩 근무)로, 기본급에 제수당이 포함되면 기본급이 오르면서 퇴직수당·복리후생비·퇴직급여·포상금 등도 소폭 인상된다.

버스노조는 1일 새벽 4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하고, 시내버스 930대도 정상 운행된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축소·관광공사 설립 추진

민선 6기 들어 전남도의 기존 조직,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프로젝트,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대와 안 맞는 조직의 과감한 폐지와 통합, 적자 누적 또는 타당성 미흡 프로젝트의 중단 또는 보류 위기가 그 핵심이다. 공기업 역시 적자를 보는 사업체들에 대한 매각 또는 위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적·물적 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선 6기 전남도지사 직무 인수위원회

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인수보고서를 마련, 이낙연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관련기사 2면>

이 당선자는 인수위 최종 보고서를 참고해 조직 또는 경영진단 등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정책 및 사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민선 6기 전남도정의 비전으로 '생명의 땅, 전남'을 제시했다. 도정 목표는 '활기있는 경제, 매력있는 문화·관광, 온정

인수위 최종 보고

현안사업 줄줄이 제동

남치는 복지 전남 구현'으로 정했다.

F1 개최 문제는 '지속 개최, 대회 중단, 2016년 개최' 등 3가지 안을 검토한 끝에 "대회 중단이 바람직하지만 FOM(Formula One Management)과의 계약으로 일부 대회의 개최를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다. 계약 미이행에 따른 전문학적인 위약금 및 소송을 고려했다는 것이 인수위 측 설명이다.

전남도 최대 개발사업인 솔라시도(일명

J프로젝트) 개발사업 중 삼포2지구 개발사업은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투자사 확보 등을 전제로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또 솔라시도 지구 내에 유치를 추진중인 경정장은 사회적 건전성 확보와 사행성 이미지 극복 우선 등을 이유로 보류, 사파리아일랜드 및 스포츠콤플렉스 사업은 예산 등을 감안해 일단 중단됐다.

인수위는 또 전남개발공사가 사업 전반에서 적자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으며 조직 축소와 함께 고강도 경영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전남관광공사 설립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BRASIL 2014

<관련기사 18·19면>

내일의 월드컵 (2일·한국시각)

아르헨티나 오전1시 스위스

벨기에 오전5시 미국

16강전 스코어 보드

네덜란드 2:1 멕시코

코스타리카 1:1 (5:3) 그리스 승부차기

지역특정! 은행탄탄!

광주은행?

광주은행!

고객님은 어떤 등급의 은행과 거래하고 계십니까?

민원발생평가 1등급 소비자보호 최우수 금융회사

광주은행